

原電建設의 技術開發과 生產性向上에 注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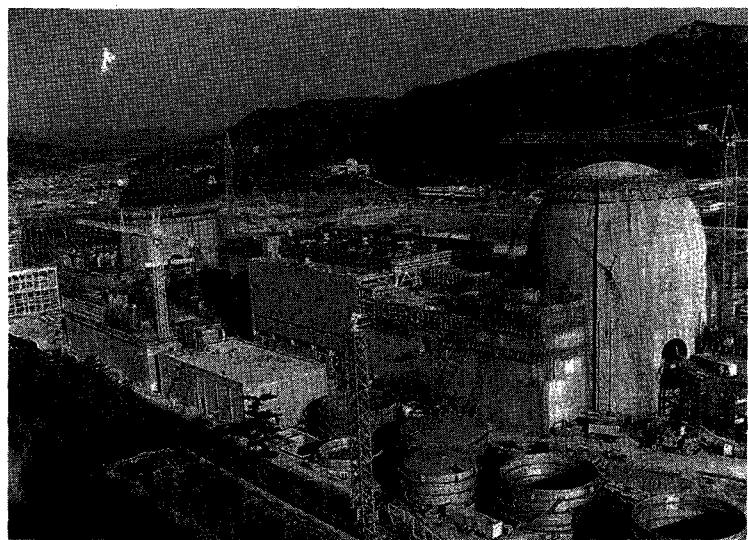
現代建設株式會社

최근 원자력산업계는 전례없는 큰 호기를 맞고 있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지난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 모든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룬 리우선언과 의제21이라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지구환경보전과 자원활용 측면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해 가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TMI 사고 후 한때 주춤한듯 했으나, 현재 11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고, 최근 산성비, 온실효과 등 공해에 대한 국민여론과 원자력에너지를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지식인들의 주장에 힘입어 1995년까지 개량형원자로(ALWR)를 실용화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입안, 원자력 관련 민간업체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 대륙에서도 원자력 중흥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편 우리의 이웃인 日本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4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우리나라는 9기)에 있고 원자력연구개발에 약 3,900억엔 상당의 연구비를 쏟아 넣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부는 원자력연구계에 향후 10년에 걸쳐 약 2조원이라는 원자력연구재원을 기약하여 원자력인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충천되어 있다. 또한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등 3저라는 호기가 2000년에 접어들기 전에 제2의 석유파동이 올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이라는 앞으로 전개될 또 하나의 호기가 합쳐 우리나라라는 자연스럽게 원자력기술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어 진다.

1993년은 현대건설(주)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건설에 참여한지 23년이 되는 해이며, 특히 현재 건설중인 영광 원전 3, 4호기는 원전건설의 기술자립과 사업수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내업체 주도형 원전건설사업으로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최초로 그동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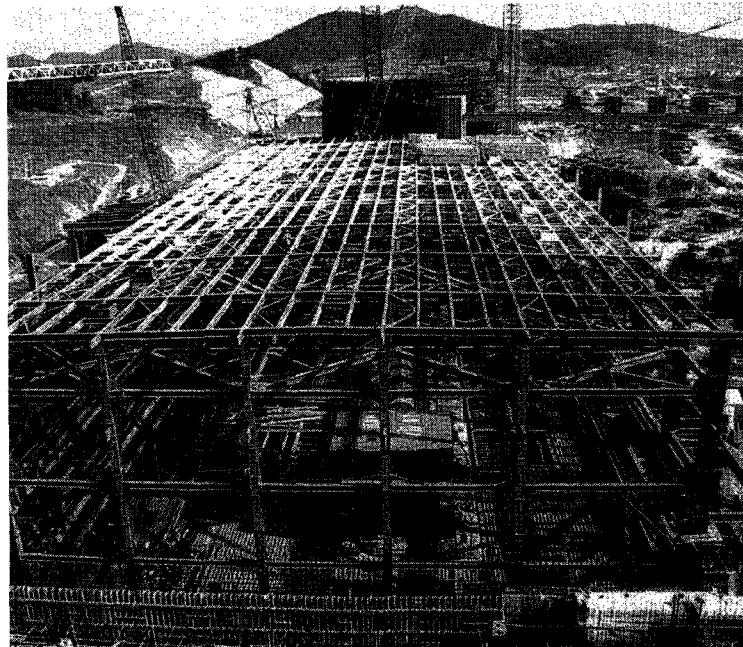
〈그림 1〉 현재 시공중인 영광 3, 4호기 본관건물 전경

시공으로 축적된 경험을 관련 회사(설계회사, 기자재제작회사 등)에 반영하는 Pre-Project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우리나라 원전기술자립 목표에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원자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큰 호기 를 맞고 있는 이때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원자력 기술개발 및 기술자립에 매우 유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건설(주)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93년 도를 원자력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의 해로 삼고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조직의 정예화와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상호간의 능률적 활용을 위한 유기적 조직체계를 구축 하며,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금년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사내교육(전산, 어학), 외부워크(전문기술 교육) 및 해외연수교육 실시 등으로 잘 훈련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충분한 인력확보 및 보다 높은 책임의식의 확립을 유도할 것이다.

둘째, 완벽한 현장지원을 통하여 자재 공급처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기술지원, 최신 자료를 응용한 시공수행 및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자재를 적기에 도입하고, 시공공법 개발 및 예상 문제점의 사전 해결을 강구하며, 주요 공정별 작업진도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고, 국내외 신공법사례 파악



〈그림 2〉 영광원전 터빈건물 구조물설치공사

및 현장적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셋째, 시공작업절차서 표준화, 공사 전반에 걸친 전산화체계 완료, 사무자동화 등의 업무표준화를 통해 작업성 향상 및 정확성을 바탕으로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완벽한 기술관리로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넷째,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 투자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계속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신기술 도입 및 과학적인 시공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원전 건설의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 9기의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원자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이 전체 전력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는 원자력 관련기술의 개발 및 기술자립과 안전성, 경제성이 보다 향상된 원전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설(주)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원자력건설의 선두주자로서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국 원자력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